

11월 끝자락 클래식·전통 풍류에 취하다

문화가 있는 날

11월의 끝자락, '문화가 있는 날' 마련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성큼 다가온 겨울 추위를 녹여보는 건 어떨까.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은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광주시 남구 구동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이중만 피아노5중주 '슈만의 실내악에 취하다' 공연을 연다. 이번 공연에는 광주시립교향악단 악장을 맡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중만을 중심으로 박승원(바이올린), 엄광용(비올라), 최주연(첼로), 김기람(피아노)이 모여 피아노 5중주를 선보인다. 독일 낭만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 슈만의 '피아노 5중주' 전 악장, '피아노 5중주 1, 2악장' 등 실내악 두 곡으로 무대를 채운다. '문화가 있는 날 열린 소극장'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소외계층과 함께 하고 관람객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선착순 100명 무료 관람. 예약 062-670-7943.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필름정거장'의 이번 주제는 '우리를 위한 여행'이다. 이날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광주극장에서는 영화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재즈 공연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오후 6시40분에는 시민참여 영화제작워크숍 '무비스타 시즌2'를 통해 참가자들이 함께 만든 독립영화 '더 플라워'를 보고 관객과 얘기를 나눈다. 오후 8시에는 크리스마스 앞두고 '우리'라는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는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2016)가 상영된다. 평생에 걸쳐 노동자를 대변한 켄 로치 감독의 은퇴작인 이 작품은 2016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영화 상영 전에는 재즈밴드 'SOOP'의 공연과 크리스마스 초콜릿 만들기, 털실 꽃만



'문화가 있는 날 주간'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린다. '진도 다시래기'(위)와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광주문화재단 내일 '슈만' 피아노5중주
광주극장서 재즈 공연·영화 체험 '필름정거장'
대촌에서 놀자 '진도 다시래기' 무대에
담양 대담미술관 '오감으로 미술관 즐기기'

지 만들기, 화면합성(크로마키) 포토존 등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이날 '필름정거장' 행사날을 시작으로 광주극장에서는 극장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광주극장 연대기' 전시가 진행된

다. 무료 관람. 문의 062-366-1895.

이웃과 함께하는 선조들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대촌에서 향악과 놀자'는 '문화가 있는 날' 주간인 12월1일 오후 2-8시 올해 마지막 잔치를 연다.

광주시남구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안팎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초상잔치'를 주제로 노래, 놀이, 연극, 무당굿 등이 어우러진 마을축제 같았던 상정례를 선보인다. 이날 오후 6시에는 진도다시래기 보존회가 국가무형문화재 81호로 지정된 '진도 다시래기'를 무대에 올린다. 진도에서는 예로부터 초상이 났을 때 동네 상여꾼들이 상제(喪製)를 위로하고 죽은 자의 극락왕생을 축원하기 위해 상주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면서 상여놀이를 펼쳤다.

행사장 곳곳에는 타악그룹 '일쭉'의 공연과 고구마를 굽고 널뛰기 등을 즐기는 세시놀이마당, 포충사와 고싸움놀이전수관 등을 돌아보는 대촌마실탐험이 펼쳐지고 잔치음식인 육개장을 함께 나눠먹는 자리 마련된다. 문의 062-676-3844.

담양 대담미술관은 오감으로 미술관을 즐길 수 있는 '먹고, 보고, 듣는, 미술관 즐기기'를 오는 30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이미지, 김수근, 박수근으로 구성된 재즈 트리오 음악회와 담양 향교리 주민들과 함께하는 햇잎주먹밥 나누기, 캠프파이어, 군고구마 파티, 인생사진 인화 체험 등으로 채워진다. 또 대담미술관에서 오는 12월16일까지 열리는 양세혁 초정전 '혈의 희생자-프랑켄슈타인의 괴물'전에 대한 해설도 들을 수 있다. 문의 061-381-0082.

광주시 남구 양림동 이강미미술관에서는 29일 오후 7시 미디어아티스트 이조흠 작가와 함께 '삶과 죽음, 그 사이의 단상'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미드나잇 인 뮤지엄'을 진행하고 국립광주박물관은 오후 5시 30분 교육관에서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된 사랑을 받은 일본 영화 '리틀 포레스트 : 여름과 가을'을 무료로 상영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오늘 영산강문화관서 청소년 진로 특강

김태진 '꿈잇수다 토크콘서트'



움을 줄 계획이다. 또 '꿈잇수다 콘서트'에서 최고의 질문을 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명사의 사인이 담긴 저서를 선물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청년 희망전도사' 김태진(사진) 동네 젊은 대표가 오는 27일 광주시 남구 승촌동 영산강문화관에서 교육기부 프로젝트 '꿈잇수다 토크콘서트' 강단에 선다. 한국수자원공사 워터웨이플러스와 진로설계 전문가 한국잡이아카데미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오는 27일부터 12월12일까지 전국 5개 강문화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설계 특강이 진행된다. 사회, 문화, 예술, 환경 등 각 분야 멘토들이 자신의 경험에 비춰 진로설계에 대한 강의를 하고 강문화관에서 근무하는 학예사 및 에듀케이터 등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 환경·문화·교육 분야 진로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질의응답을 통해 도

27일 광주 영산강문화관에서의 김태진 대표 강의를 시작으로 30일 여주 한강문화관(박세상 '한복남'), 12월2일 대구 디아크문화관(류정하 크리에이티브랩 대표), 12월8일 세종보 금강문화관(이희준 연남방앗간 대표), 12월12일 부산 낙동강문화관(임수민 포토그래퍼) 강연이 이어진다. 문의 영산강문화관 061-335-0868.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예스24 '올해의 책' '올해의 커버' 다음달 6일까지 투표

인터넷 서점 예스24(www.yes24.com)가 2018년 한 해 동안 출간된 도서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책과 커버를 독자들이 뽑는 '제 16회 올해의 책' 및 '올해의 커버' 투표를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

'제 16회 올해의 책' 투표는 소설, 시/에세이, 인문·교양, 경제경영, 자기계발, 유아동·청소년, 가정·취미·실용, 만화·예술 등 8개 분야 236권의 후보작 가운데 4개 이상 분야에서 선택한(4권에서 10권까지) 책 중 상위24권이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다.

후보작에는 유시민의 '역사의 역사',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고양이', 정재승의 '열두 발자국', 백세희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등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베스트셀러들이 몰방에 올랐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 디자인이 돋보이는 책 커버를 뽑는 '올해의 커버' 투표는 출판사 편집자, 디자이너, 마케터 및 예스24 MD들의 추천을 받은 70권 내외의 책 표지 중 독자들이 2중에서 5중까지의 표지를 선택한다. 최다 득표한 책 커버는 역사, 노트, 스케치북 등의 굿즈로 제작돼 수상작을 선보이는 전시회에서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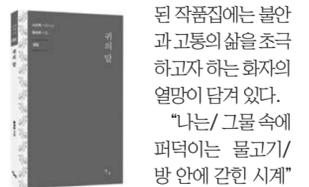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황상희 시인 시산맥 서정시선 '귀의 말' 펴내

'봄, 나무로부터 새로 돌아나는 나뭇잎처럼 시(詩)의 싹이 돌아나 유난히 눈이 부셔 바로 볼 수 없도록 깊이 바라보이는 새 잎이 되기를 바란다'

황상희 시인이 시산맥 서정시선으로 '귀의 말'을 펴냈다.

황 시인의 작품에는 "시인은 왜 시를 쓰는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들이 많다. 시인은 누구보다 예민하게 현실의 부조리와 고통의 삶, 불안과 상처의 일상을 작각하고 이를 형상화하는 존재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시인다운 시인이 황상희 시인일 수도 있겠다. '아버지의 섬', '나무로부터', '제비썩', '나무였으면 좋겠다' 등 모두 4부로 구성



된 작품집에는 불안과 고통의 삶을 초극하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이 담겨 있다. "나는/그물 속에 퍼덕이는 물고기/방 안에 갇힌 시계(습도계)", "불화하는 말들이 자라고 자라서/한 편의 시가 된다는 자각들(일출)"에서 보듯 화자는 어두운 시적 현실을 승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한편 황 시인은 서울 출생으로 북사골문학회 소새시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외되고 상처받는 이웃들 서정적 문체에 담아

해남 출신 김다경 세번째 작품집 '아무도, 아무도 없이'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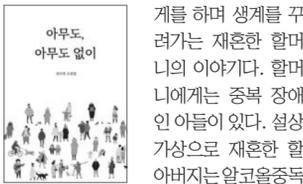
"내 소설 속 인물들은 눈물이 차오르도록 외롭고 힘들어보였다. 그들의 얘기를 쓰는 동안 나는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울었다. 그래서 가능한 어두운 얘기들은 쓰지 않으려고 한다.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다음에야 글이 끝난다 때문이다. 그럼에도 다시 글을 쓴다.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내 소설의 인물들이 반짝반짝 빛날 날을 희망한다."

해남 출신 김다경 소설가가 세 번째 작

품집 '아무도, 아무도 없이' (청어)를 펴냈다.

모두 6편이 실린 소설집에서 작가는 소외되고 상처받는 이웃들을 연민의 시선과 서정적인 문체로 담아낸다. '영어학당', '그해 겨울', '그런 망고', '모래 사람', '벽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등의 작품은 작가의 눈에 비친 이웃들의 절망과 아픔이 담겨 있다.

표제작 '아무도, 아무도 없이'는 작은 가



게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재혼한 할머니의 이야기다. 할머니에게는 중독 장애인 아들이 있다. 설상가상으로 재혼한 할아버지는 알코올중독자인데다 할머니 또한 암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할머니는 친정 여동생들에게 유서를 써서 아들들을 복지시설에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지만, 여동생들은 재산에만 눈이 멀어 있다. 이처럼 소설 속 인물들은 고통의 현실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담담하면서도 일말

의 분노가 느껴진다.

작가는 "글을 마무리 할 때마다 이 힘든 소설은 그만 쓰자,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침표를 찍으며 나는 또다시 책상 앞에 앉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며 "이 글이 외롭고 상처받는 이들을 만나 위로가 되었을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작가는 광주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담양에서 거주하며 창작에 몰입하고 있다. 지금까지 에세이 '치자꽃 향기 속에서', '산타이고 영혼을 부르는 시간'과 장편 '순바의 여인', 창작집 '공중도시' 등을 펴냈으며 광주문학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롤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그집고기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실험 뒤) 편, 돼지고기 전문, 닭발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초대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씨브웨이 광주충장점 동구 중앙로 160번길 31-18 (황금동) 직원모집 합니다. 08:00~23:00 ☎062)236-1121	루팡닭강정 북구 용두동 우방아이유셀상가 매운 맛, 달달한 맛 개인·단체 환영 대표 한경수 ☎010-3844-7145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시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교원빨간펜남광주센터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수 있는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통합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가능 ☎010-3613-3145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실험2층) 작명, 시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하얀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등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컬러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서울표구점 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 ☎010-3633-2790	메타루이펜션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377-1번지 (담양프로방스 옆) 편백과 황토로 지은 자연건강 숙소 가족탕 겸함, 예약받습니다. ☎061)383-2698, 010-3603-2698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전병양 ☎062)263-2223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시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해피니스요양병원 북구 삼정로 142 (두암동, 청야맨션 건너편) ☎062)251-8400	